

경제 프리즘

채무자 압류금지 최저한도 상향

최저생업 유지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비 등 최저한도가 기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른다.

법무부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활비, 급여, 예금의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최저임금도 상승하고 있지만 150만원으로 고정된 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액이 이런 경제여건 변동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받고 기본근로시간(월 209시간)을 일하더라도 월급여액은 157만4,000원 수준으로, 현행 압류금지 급여 최저한도를 웃돈다.

신라인터넷면세점 '최고 디지털 혁신상'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최근 프랑스 칸에서 열린 '2018 세계면세박람회'에서 '최고의 디지털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계면세박람회는 세계면세협회가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 박람회로 이번에 신라인터넷면세점이 받은 '최고의 디지털 혁신상'은 혁신적이고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을 펼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주는 상이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선글라스 같은 패션 카테고리에서 최근 도입한 '신라티핑'이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신라티핑'은 신라인터넷면세점 회원이 직접 작성한 리뷰로 발생한 매출의 최대 3%까지 현금성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신개념 상품평 서비스다.

한국 조선, 9월 선박수주 1위

한국 조선업계가 9월에도 전 세계 선박수주 시장에서 1위를 유지했다. 수주 잔량도 1년 9개월 만에 2,00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넘겼다.

10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52만CGT(75척) 중 한국이 163만CGT(28척, 65%)를 수주하며 5개월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35만CGT(17척, 14%)에 그치며 2위에 머물렀다.

올해 1~9월 누계실적에서도 한국은 950만CGT(212척, 45%)로 651만CGT(307척, 31%)의 중국이나 243만CGT(111척, 12%)의 일본을 앞서는 여전한 1위를 유지했다. 중국과의 격차는 299만CGT까지 벌어졌다.

자영업자 폐업률 광주가 가장 높다

지난해 2만4천여명 폐업신고 '전국 1위'

유성엽 "중앙정부 차원 지원 필요" 주장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별로는 광주시의 폐업률이 가장 높아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유성엽(정읍·고창)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자영업자는 총 83만7,714명이 폐업했다.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11.7%로서 최근 5년 평균 11.9%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72.2%로서 최근 5년 평균 75.8%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음식점이 작년에 16만 3,000여명 폐업해 가동사업자 대비 18.8%, 신규사업자 대비 92.7%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광업 등 특수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광주시가 2만4,259명이 폐업을 신고했는데, 가동사업자 대비(13.2%)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80.5%)에서도 1위를 보여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광주시의 신규사업 대비 폐업률

80.5%는 전국평균 폐업률 72.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 5년간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의 경우, 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주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 이어 울산이 13%로 기존사업자 대비 폐업률이 높게 조사됐고, 신규 대비 폐업률은 대전이 79.9%로 79%를 기록한 서울과 나란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세종과 제주는 신규 대비 폐

업률이 각각 42.2%, 56.3%에 그쳐 지역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유성엽 의원은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하는 일부의 주장은 아직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다만 음식점과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 대비 폐업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광주와 같이 특정 지역이 계속해서 폐업률이 높게 나타난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길용현 기자



중기지방청은 장흥군, KOTRA 등과 함께 장흥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청 제공

중기지방청, 지역 농수산물 수출방안 모색

수출 지원기관과 간담회

지역 농수산식품의 해외 시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과 장흥군청은 10일 한국수출비즈니스클럽 회원사와 함께 미국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진형 중기지방청장, 정종순 장흥군수, 최동석 KOTRA 광주전남본부 단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장흥지역 수출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전략과 애로사항

을 청취하고 수출 걸림돌 해결에 적극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장흥기업 생산제품을 현지 유통하기 위한 미국 내 물류센터 설치 및 유통계획 등 구체적인 시장진출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순조로운 대미 수출준비를 위한 유관기관의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현지 동향 파악 등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해외지사화 사업, 수출성공패키지 사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수출 품목으로는 표고, 햇개, 미역귀 등 농수산물과 청국장, 조미김 등 가공식품으로 규모로는 100억원에 이른다.

김진형 중기지방청장은 "이번 자리가 전남의 정정 농수산물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금호타이어 또 휴무...올들어 세번째

금호타이어가 올 들어 세 번째 공장 휴무에 들어간다.

10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광주공장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의 공장 휴무를 결정했다. 곡성공장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측은 이 기간 중에 일부 무급 또는 통상 임금 50%만 지급할 방침이다.

노사의 이같은 결정은 자동차 수출 부진과, 미·중 무역전쟁, 유럽 영업망 붕괴 등으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재고누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재고감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재고관리비용 최소화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9월 말 추석연휴를 전후로 공장별 6~8일간의 장기 휴무를 실시했다. 당시 광주공장은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곡성공장은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PCR(승용차용 타이어)라인은 17일부터 28일까지 공장휴무를 진행했다. /김영민 기자

한전 출장비 횡령 최대 도덕적 해이 '빨간불'

10년간 3,064건·1억2,700여만원 부정수급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전력과 한전KDN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출장비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자부 산하 32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전은 3,064건으로 약 1억2,700만원을 횡령했으며 뒤이어 한전KDN이 882건에 약 1억2,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최근 수년 간 300~400건에 가까운 출장비 횡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714건)의 경

우 전년도(374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전KDN은 직원 1명이 359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은 "청렴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이 출장 기록을 조작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횡령하고 있다"며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비위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를 횡령한 건수는 총 7,980건에 전체 횡령 금액은 약 6억9,560만원이다. /서미애 기자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

정부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우수시장 평가에 나선다.

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자간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시장 콘테스트는 재래·전통·도소매 시장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 다음달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최우수 시장은 상장과 700만원 상당의 부상, 우수시장 1개소에는 상장과 3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심사절차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



차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서류 심사는 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의 참여비율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수가 높은 6개 시장을 선발한 후 소비자단체·수산물 유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월간 전남매일
구독문의 062) 720-1006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만
근조화환 3만
경조화환 7만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계 11일은 인구의 날
도와주는 아바에서
함께하는 아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 |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사정상 급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38평, 사무실 전용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우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 보 1천만, 월50만원 임대보증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8400만원
문의. 010-6834-7400